

판단의 양태성에 대한 이해

정 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선말은 표현이 매우 풍부하여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감정이든지 능히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다.》(《김정일선집》 제5권 증보판 308페이지)

판단의 양태성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의 사유과정과 언어생활에서 판단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특성과 관련된것으로서 판단에 대한 이해에서 매우 중요하다.

양태성이란 필연성과 우연성, 가능성과 현실성, 근거성과 당위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판단의 특성이다.

판단은 사람들의 사유과정과 언어생활에서 언제나 《...이다》, 《...아니다》 즉 《S는 P이다》, 《S는 P가 아니다》로만 아니라 《S는 반드시 P이다》, 《S는 P일수 있다》, 《S는 P여야 한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진다.

이것은 판단이 대상과 징표, 대상과 대상사이의 련관을 《...이다》,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표현하는것이 아니라 련관이 있는데는 어떻게 있는가, 필연적인가 우연적인가, 가능한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현실적인가 아닌가 하는것도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판단은 판단에서 주장되는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추측이나 희망, 의혹, 확신, 의무와 같은것도 표현한다. 《S는 P일것이다》는 추측을 나타내고 《S는 반드시 P일것이다》는 확신을 나타내며 《S는 P면 좋겠다》는 희망을 나타낸다.

결국 판단에는 이야기되는 내용과 현실과의 호상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의 주관적태도가 반영되며 그것은 양태성으로 표현된다.

판단의 양태성은 일상언어에서 《아마,

설마, 물론, 혹시, 보건대, 반드시 꼭》 등과 같은 양태부사나 《확신하다, 의심스럽다, 가능하다, 필연적이다, 희망하다》와 같은것들로 표현되며 《...수 있다, ...듯 하다, 싶다, 하여야 한다》와 같은것들로도 표현된다.

물론 양태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가지지 않는 판단, 문장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의 내용적분석을 통하여 양태성을 알수 있다. 《래일 비가 온다.》라는 판단에는 양태적뜻을 가진 단어가 없지만 내용분석을 통하여 의미상 《반드시》라든가 그와 류사한것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판단의 양태성은 필연성과 가능성, 현실성, 근거성, 당위성으로 갈라볼수 있다.

판단의 양태성은 무엇보다먼저 주사와 빈사사이의 련관의 필연성을 나타낸다.

주사와 빈사사이의 련관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판단을 필연판단이라고 한다.

필연판단은 대체로 《S는 반드시 P이다(아니다).》로 표현된다.

필연판단은 현실세계의 필연적이며 본질적인 련관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고있다. 실례로 자연에서 온도, 습도를 비롯한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씨앗으로부터 싹이 트는것이라든가 사회에서 낡은 사회제도가 일정한 력사적발전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선진적인 사회제도로 교체되는것은 다 사물현상자체의 내적이며 본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필연판단의 진리성은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희망이 아니라 객관적현실에 의하여 규정된다.

자연언어에서 필연판단의 필연성은 《반드시, 틀림없이, 꼭, 필연적으로》 등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며 때로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단어표현은 생략되기도 한다.

판단에서 주사와 빈사사이의 필연적련관이 부정되고 우연적련관이 주장되는 경우도 있다.

우연성은 일정한 조건에서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으며 이렇게 될수도 있고 저렇게 될수도 있는 사물현상들간의 련관을 말한다.

실례로 《이번 체육추첨에서 김동무가 당첨되었다.》라는 판단을 들수 있다. 김동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당첨될수도 있으며 따라서 김동무가 당첨된것은 우연이다. 여기서 김동무라는 대상과 당첨이라는 징표사이의 련관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으며 대상과 징표사이의 련관은 조건에 따라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것으로서 우연적인것으로 된다.

판단의 양태성은 다음으로 주사와 빈사사이의 련관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주사와 빈사사이의 련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판단을 가능판단이라고 한다. 가능판단은 흔히 《S는 P일수 있다.》나 《A가 가능하다.》로 표현된다.

가능판단에서 주사와 빈사사이의 련관은 일정한 조건에서 있을수 있다는것이 주장된다. 다시말하여 주사와 빈사가 량립할수 있다는것이 주장되며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다.

《경기에서 가림이 나뒀을 이길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가림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길수 있다는것이 표현되며 《가림》과 《이긴다.》가 량립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 반대되는 결과도 배제하지 않는다. 가림이 나뒀을 이길수도 있으며 가림이 나뒀에게 질수도 있는것이다.

가능판단은 사물현상이 자기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새로운 사물현상으로 넘어갈수 있는 경향성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고있다. 가능성과 현실성은 사물현상발생발전의 기본적인 두 단계를 특징짓는 쌍범주이다. 모든 사물현상은 현실성으로 되

기 전에 먼저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현실적인 사물현상은 다른 사물현상으로 넘어갈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가능성은 주관적욕망이나 가정이 아니라 객관적합법칙성에 근거를 두고있는것으로서 일정한 조건이 성숙되면 현실성으로 전화된다.

자연언어에서 가능성은 《아마,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배제하지 않는다》등과 같이 표현된다.

판단에서 주사와 빈사사이의 련관의 필연성과 가능성은 호상 제약한다.

필연성은 불가능성을 표현한다. 즉 《P가 필연적이라는것은 비P가 불가능하다.》는것을 말한다.

가능성은 비P의 필연성에 대한 부정을 표현한다. 즉 《P가 가능하다는것은 비P가 필연적이지 아니다.》라는것을 보여준다.

판단의 양태성은 다음으로 판단과 객관적현실사이의 실제적련관을 나타낸다.

판단자체와 현실사이의 련관을 표현하는 판단을 실연판단이라고 한다.

실연판단에서 판단자체와 현실사이의 련관은 판단의 론리값으로 표현된다. 판단과 현실사이의 련관, 판단의 주사와 빈사사이의 련관이 객관적현실과 일치하면 진리라고 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라고 한다.

판단의 현실성은 자연언어에서 《...실재한다, ...실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등과 같이 표현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표현을 가지지 않는다.

실연판단은 필연판단, 가능판단과 일정한 론리적의존성을 가진다.

만일 A가 필연적이라면 그것은 현실적인것으로 된다. 그러나 A가 현실적인것이라 하여 반드시 필연적인것이라고 말할수 없다. 《저 아파트들의 색깔은 푸른색이다.》는 그 아파트가 반드시 푸른색이 되어야 한다는것을 표현하는것이 아니다.

만일 A가 현실적인것이라면 A는 가능하다. 그러나 A가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현실적인것은 아니다.

그리고 A가 필연적이라면 가능한것으로도 되지만 A가 가능한것이라고 하여 A가 필연적인것은 아니다.

판단의 근거성은 양태성의 중요내용을 이룬다.

판단의 근거성은 판단에서 주장되는 내용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는것인가를 표현하는 판단의 특성이다.

《실험에서처럼 염산은 푸른리트머스지를 붉게 만든다.》라는 판단은 《실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라는것으로써 주장되는 내용의 근거성을 표현하고있다.

사람들사이의 의사교환은 판단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동시에 판단에서 주장되는 내용의 근거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판단의 근거성이 어떠한가, 판단에서 주장되는 내용이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따라 그 판단이 긍정될수도 있고 반대로 긍정되지 않을수도 있다.

판단의 근거성은 그 언어적표현이 다양하지만 크게는 논리적인것과 비논리적인것으로 갈라볼수 있다.

비논리적인것은 신앙, 권위, 이해관계, 습관과 같은것에 근거를 둔것이다. 《누구에 의하여 무엇이 어떻다》라든가 《성서에 있는것처럼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와 같은 판단들이 비논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판단들이다. 이러한 판단들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며 그중 많은것들이 진리인 내용을 담고있다고 해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는 판단은 아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진 판단은 실천적 경험이나 과학리론적근거에 기초하고있다. 이러한 판단은 그 근거성의 수준에 따라 확실한것과 그렇지 못한것으로 갈라진다.

판단에서 주장되는 내용이 충분하게 근거지어졌다면 그 판단은 확실한것으로 된다. 이러한 판단에서 그의 내용은 경험적

인것이지만 과학리론적인것에 기초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이다.》는 그의 근거가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것이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판단은 판단이 진리라는것에 대하여 의심이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의심이 없다고 하여 그것이 경험적근거나 과학리론적근거를 가진다고 말할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비논리적으로요인에 의하여서도 의심이 없을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두 판단을 대비하면 그중에서 어느것이 《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할수 없다. 판단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근거성의 수준에서 차이가 없이 둘 다 확실한것이며 만일 어느것이 《보다 더 확실하다》면 다른것은 《보다 덜 확실한것》 즉 확실하지 못한것으로 된다.

확실하지 못한 판단은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진리성을 확실한것으로 말할수 없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신앙이나 습관, 주관적리해관계나 희망에 기초한 비논리적인 근거와는 달리 일정한 실천적경험이나 과학리론적인것에 기초하고있는 논리적인 근거이다. 단지 그의 진리성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있지 못할뿐이다.

확실하지 못한 판단은 자연언어에서 《보건대, 아마, 가능하다, 간주된다》 등과 같은 단어로 표현된다. 《보건대 모든 금속은 고체이다.》라는 판단은 모든 금속을 다 보지 못한 조건에서는 진리성을 정확히 규정할수 없지만 수은과 같은 금속도 있다는것이 확인된 후에야 허위라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되며 그의 진리성을 정확히 규정할수 있는것이다.

확실하지 못한 판단은 《아마도 P이다.》, 《보건대 P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확실하지 못한 판단은 그의 근거가 불충분한것으로서 확실한 판단과 차이이며

따라서 진리성이 증명되지도 반박되지도 않은 판단이다.

《아마도 P이다.》는 《P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증명된것이 아니며 동시에 P가 론박된것도 아니다.》는것이다.

실례로 《아마도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판단은 지구밖의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동시에 그것이 론박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도 아니라는 뜻을 가진다.

현대론리학에서는 확실하지 못한 판단의 근거성을 흔히 확률론적으로 표현한다. 판단의 논리적근거성을 P로 표시하면 P는 0과 1사이의 값을 취하게 된다.

확실한 판단은 서로 대비하여 어느것이 《더 확실하다》고 할수 없으나 확실하지 못한 판단은 그 근거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기때문에 서로 대비하여 그중에서 어느것이 더 확실하다고 말할수 있다.

판단의 당위성은 규범이나 의무를 표현하는 판단의 특성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의 구체적활동에 대한 요구나 행동규칙, 지시 등을 표현하는 판단의 특성을

말한다.

우리 말에서 당위성은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하는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자연언어에서 판단의 당위성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금지된다, 할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할 권리가 있다, 가질수 있다》등으로 표현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준수규범이나 의무를 표현하고 《금지된다, 할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등은 금지규범을 표현하며 《...권리가 있다, 가질수 있다》등은 말 그대로 권리규범을 표현한다.

《공민은 반드시 사회주의생활준칙을 지켜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떤 위법현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민은 누구나 주권기관선거에 참가할수 있다.》는 것들이 판단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이처럼 판단은 《...이다(아니다)》라는 특성뿐만아니라 필연성과 가능성, 현실성, 근거성과 당위성과 같은 양태성도 가지며 그것으로 하여 언어도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다.